

2015 문화계 결산

③ 문학·문화재

민족시인 문병란 별세...‘문학들’ 창간 10돌

신경숙 표절 뜨거운 논란

송수권 시 문학상 제정

150명 ‘장성문학대관’ 출간

문학 올해 문화계 최대 이슈는 신경숙 표절 논란이었다. 초여름에 터진 표절 논란은 이후 문학·출판계를 뜨겁게 달구면서 한국 문단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후 스타작가와 거대 출판사들의 카르텔, 신인 발굴에 인색해져버린 문학구조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문학권력으로 지목된 문예자들이 혁신과 변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발행되는 대표 문예지 ‘문학들’은 창간 10돌이라는 경사를 맞았다. 지난 2005년 가을호로 창간된 ‘문학들’은 삶과 문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편집 방향을 옹골케 지켜왔다. 광주라는 지역성을 새롭게 조명하면서도 ‘소수자들의 삶’과 같은 차별화된 기획 등으로 새로운 문예지의 방향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에는 ‘국토’의 시인 죽형(竹



창간 10돌 맞은 지역 대표 문예지 ‘문학들’.

兄) 조태일(1941~1999)을 기념하는 기념사업회가 설립됐다. 시인과 문단 활동을 함께 했던 문인들과 광주고 동문, 광주대 문예창작과 제자 등이 주축이 돼 (사)죽형 조태일기념사업회를 꾸렸던 것이다. 기념사업회는 시인의 작품 및 배경이 되는 공간을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고 가거도 시비 건립, 생가 복원, 문학자료 DB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문에 기대어’로 유명한 남도의 대표 서정시인 송수권의 문학적 성과와 업적을 기리는 문학상도 제정됐다. 고흥군이 제정한 ‘송수권 시 문학상’은 생존하는 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문병란 시인

이와 달리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지난 9월에는 남도가 배출한 대표적 시인 문병란 전 조선대 교수가 지병으로 타계했다. 문학을 매개로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시인은 시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견지했다. 화순 출신인 고인은 1963년 다행 김현승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가로수’등을 발표하며 데뷔했으며,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는 작품을 썼었다.

한편 전남대 한재익기 운동 ‘한독’은 한비아의 ‘1그램의 용기’를 시도민과 함께 읽었다. ‘한독’은 지역독서 운동을 뿌리내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성문학대관’

장성문인협회는 올해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장성 출신 문인들의 대표적인 작품과 활동을 집대성한 ‘장성문학대관’을 출간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역의 문학작품을 모아놓은 책이 없지 않지만 다양한 내용과 역사, 의미를 종합적으로 담아낸 것은 ‘장성문학대관’이 처음이다. 책에는 허서 김인후, 노사 기정진, 망암 변이중 등 150여 명의 작가와 500여 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한편 전남대 한재익기 운동 ‘한독’은 한비아의 ‘1그램의 용기’를 시도민과 함께 읽었다. ‘한독’은 지역독서 운동을 뿌리내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소리모아 더 힐링’ 콘서트

27일 광주콘텐츠지원센터 공연장

박문옥, 박대홍, 최준호로 구성된 ‘소리모아’가 세상에 나온 건 1977년 제1회 MBC 대학가요제를 통해서다. 데뷔 40년이 되는 2017년, 전국 순회 공연을 준비중인 소리모아 트리오가 다시 모여 판을 벌였다. 여기에 오정목씨와 신상균 씨까지 결합해 ‘소리모아 더 힐링’ 첫번째 콘서트를 준비했다. 27일 오후 3시~6시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공연장(사직공원 옛KBS).

‘소리모아 더 힐링’은 ‘작은 공연’, 선조들이 펼쳤던 ‘대청놀음’을 지향한다. 음악과 재담이 어우러진 유쾌한 무대를 꿈꾼다. 생활 공간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마음도 담았다.

첫곡은 이 겨울과 어울리는 ‘첫눈’이다. 이어 ‘지극히 고귀한 사랑’, ‘사랑은 강물처럼’ 등 소리모아의 대표작을 만나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iling in Love’, 크리스 크리스토퍼슨



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폴 사이먼의 ‘Sound of Silence’ 등이 연주된다. 또 ‘먼길’, ‘꽃바람’, ‘강변에서’, ‘시냇가에서’, ‘부모’, ‘나 하나만의 사랑’, ‘그대 그리고 나’, ‘첫발자국’ 등이 연주된다.

고진형, 김수남, 최연석씨가 토크 손님으로 초대됐다. 티켓 가격 5만원. cafe.daum.net/parkmoonok, 문의 010-6548-2191. /김미은기자 mekim@

창작 교향곡 ‘무등산’ 공연 29일 빛고을문화관

빛고을 광주의 상징, 무등산과 5·18을 소재로 한 창작 교향곡이 공연된다. 지역에서 실내악, 성악곡 등이 창작되는 경우는 많지만 규모가 큰 교향곡은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작곡가 김선철씨가 교향곡 ‘무등산’을 공연한다. 29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전 4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 ‘무등산’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주요 모티브로 사용됐으며, 4악장에 고 범대순 교수의 ‘무등산이 불이었을 때’를 삽입했다.

1악장은 평화로운 광주를, 2악장은 5월 광주를, 3악장은 5·18희생자들을 위한 상여가로 구성했으며 마지막 4악장은 광주를 지켜주는 무등산을 표현했다. 연주는 피아노 오케스트라(지휘 김태선)가, 합창은 풍당클래식합창단(지휘 강효진)이 맡았다.



김선철

이번 공연에서는 피아노협주곡 ‘게르니카’도 연주된다. 김씨는 스페인 내란을 주제로 전쟁의 비극성을 표현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스페인 바르셀로나 프라도 미술관에서 만났다. 이후 전쟁의 무서움, 민중의 분노와 슬픔 등의 강렬한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협연자로는 김정아 광주대 교수가 참여한다.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김씨는 오스트리아 빈 시립음악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수학했다. 현재 호신대, 광주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T&T 예술기획 대표를 맡고 있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컬처팩토리’ 28일 보헤미안서 ‘파자마 콘서트 파티’

광주·전남 문화기획단체 ‘컬처팩토리’가 28일 문화전당 역 맞은편에 위치한 감성문화예술공간 ‘보헤미안’(밀려타임 지하)에서 오후 6시30분~밤 11시20분 ‘파자마 콘서트 파티’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지역 실력과 인디밴드 ‘AV’(어메이징 비주얼), ‘샌치한 버스’, ‘Black ice tea’, ‘BIG STAR PLAN’이 참여한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부(오후 7시30분~9시10분)에서는 미리 공모한 참석자들의 사연을 음악과 함께 들려준다. 2부(오후 9시30분~밤10시30분)에서는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폐장 등 흥겨운 시간이 마련됐다. 공연 이외의 시간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됐다.

티켓 가격 2인 1매 2만원. 문의 062-416-1006. /김용희기자 kimyh@

광주 하남지구서 삼국시대 마을 오롯이 발굴

신창동 유적지 국내 첫 철기시대 벼 재배 유구 발견

문화재 올해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에서 4~6세기 대규모 삼국시대 마을유적이 발견돼 화제를 모았다. 광주시가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발견된 이 유적은 하남동 154번지 일대 4만487㎡에서 모두 493기의 유구(遺構)가 확인됐다. 주거지 181기, 원두막형 건물지 165기, 가마 4기, 고분 4기, 수혈(저장용 구덩이) 67기 등이며 생활토기 등도 함께 출토됐다. 주거에서 매장, 창고 등의 단계별 변화상을 볼 수 있어 우리나라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신창동 유적에서는 올해도 새로운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16차 발굴조사 결과 국내 최초로 철기시대 벼를 재배했던 밭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됐다. 완만 한 경사를 유지한 구릉 하단부에 자리잡

은 이 곳은 고랑과 이랑이 10줄로 구성된 밭이 뚜렷히 남아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굴된 경작 유구는 청동기시대와 삼국~조선시대에 개간된 사례가 대부분으로, 초기 철기시대 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는 올해도 신창동 유적지 전부를 매입하지 못해 유적지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시는 지난 1995년부터 신창동 유적지(사유지 12만3881㎡) 부지매입에 들어가 올해까지 부지의 95.99%(11만8908㎡)를 사들였다.

복록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진도 명량대첩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데 이어 첫 전시를 열었다. 2016년 2월 14일까지 개최되는 특별전 ‘명량(鳴梁)’에서는 명량대첩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사



지난 6월9일 광주 하남3지구 삼국시대 마을유적지 설명회에서 조사관이 가마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소승자총통’ 등 300여 점의 유물을 만날 수 있다.

광주민속박물관은 광주역사박물관으로 대변신을 꾀한다. 최근 공개한 ‘시민민속박물관 리모델링 및 광주역사 전시공간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

터 3년간 94억원(국비 38억원·시비 56억원)을 투입, 기존 상설전시실 1층은 광주역사, 2층은 전통문화 전시실로 전환해 2018년 재개관할 예정이다. 기획전시실은 그대로 유지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울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쪼갬목, 절단목



주문상담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쪼갬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